

「전쟁론」 번역서 유감¹⁾

김 만 수*

눈 덮인 들판을 걸을 때는 踏雪野中去
어지러이 걷지 마라 不須胡亂行
오늘 내가 걸어간 발자국이 今日我行跡
뒷사람의 길잡이가 되느니 遂作後人程
西山大師

목 차

- | | |
|----------|-------------------|
| 1. 머리말 | 2. 기존 번역서 개괄 및 특징 |
| 3. 이해 유감 | 4. 문장 유감 |
| 5. 용어 유감 | 6. 국어 유감 |
| 7. 맺음말 | * 영문 초록 |

1. 머리말

고전(古典)이 있다.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뛰어난 가치를 갖고 있어, 후세의 인류에게 커다란 영향을 끼치는 책을 말한다. 또한 책

* 사회학박사, 대전대학교 군사연구원 연구위원

1) 이 논문의 원고를 읽고 유익한 비평을 해주신 대전대학교 김준호 교수님께 감사 드린다.

중에는, 누구나(?) 읽지만 아무도(?) 이해하지 못하는 (또는 이해하기 어려운) 책도 있다. 클라우제비츠(Carl von Clausewitz)의 「전쟁론」(Vom Kriege)은 이 두 부류에 모두 해당하는 ‘악명’ 높은 책이다.

여기서 새삼 「전쟁론」의 가치와 중요성을 논할 생각은 없다. 「전쟁론」출간 이후, 동양에서는 「손자병법」이요, 서양에서는 「전쟁론」이라는 정석이 굳어졌다. 이 말만으로도 「전쟁론」의 가치는 충분히 입증되리라 본다.

「전쟁론」은 군사전문가들뿐만 아니라 마르크스, 엥겔스, 레닌 등 사회주의의 지도자들에게도 널리 읽혔다. 최근에는 정치와 경제, 경영 분야에도 「전쟁론」의 전략·전술이론을 도입하고 있는 실정이다.

우리나라의 사관생도들은 누구나 한번씩은 「전쟁론」을 읽고 사관학교를 졸업한다. 장교에게, 특히 고급장교들에게 「전쟁론」은, 한번씩은 독파해야 한다는 부담을 갖게 하는 책이다. 여기서 두 가지 결론이 나온다. 첫째, 그들은 대부분 「전쟁론」을 한 권씩은 소장하고 있다. 둘째, 그들은 거의 모두 어쨌든(?) 「전쟁론」을 읽었다.

하지만 ‘무슨 소린지,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다.’ 이 또한 그들의 입에서 이구동성으로 나오는 말이다. 여기서 다시 두 가지 결론이 나온다. 첫째, 「전쟁론」을 끝까지 읽은 사람이 거의 없다. 둘째, 읽은 부분이나마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다.

「전쟁론」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독자가 있다면, 단언하건대 그건 전혀 독자의 책임이 아니다. 번역을 제대로 하지 못한(?) 역자의 잘못이 없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그것도 그리 크지는 않다.

그 책임은 상당 부분 저자 자신의 몫이다. 이는, 저자인 클라우제비츠가 어려운 독일어를 구사했다는 뜻이 아니다. 내용이 난해하다는 의미도 아니다. 단지 저자가 원고를 탈고하지 못했다는 말이다. 「전쟁론」은 저자가 원고를 완결해 놓은 상태에서 책으로 출간되지 못했다. 그 점이 책의 내용과 언어를 난해한 것으로 만들었다. 「전쟁론」이 난해하다면, 나의 생각으로는, 바로 이것이 가장 결정적이고 치명적인 이유다. 저자가 이미 사망했으니, 이걸 해결 방법이 없는 이유가 된다.

이 이유보다 덜 치명적이지만, 중대한 이유가 하나 더 있다. ‘전통적으로’ 번역을 천대하는 한국의 지적 풍토가 바로 그것이다. 뛰어난 지식과 어학실력을 갖춘 능력 있는 교수들은 대개 ‘전통적으로’ 번역을 안 한다. ‘돈이 되지 않기’ 때문이다. 그래서 수십 번 번역해도 그 번역이 그 번역이다. 대학원생들이 하는 번역도 적지 않다.

이러한 ‘전통’의 결과, 읽기 힘들고 이해하기에는 더욱 어려운 번역서가 몇 십 년 동안 아무런 문제없이 출판되고 있다. 「전쟁론」 번역에도 예외가 아니다. 그 점을 확인하기 위해 「전쟁론」의 한국어 번역서를 직접 보도록 하겠다.

정말이지, 번역에 대해 근본적으로 다시 생각해야 할 때다. 우리나라도 이제 제대로 된 번역을 할 만큼은 ‘먹고사는’ 문제를 해결한 나라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기 때문이다. 이 글이 그러한 문제를 해결하는데 조그만 보탬이라도 된다면, 그것으로 만족한다.

2. 기존 번역서 개괄 및 특징

현재까지 내가 갖고 있는 「전쟁론」의 우리말 번역서는 아래와

같다. 그 발행연도순으로 정리하였다. 상권과 하권 두 권으로 되어 있는 책은 하나의 번역서로, 즉 한 권으로 간주했다.

〈표 1〉 기존의 「전쟁론」 번역서

	발행일	역자	출판사	쪽수	총서
1	1972.10	권영길	하서출판사	상454, 하463	세계병법대전집 7, 8
2	1972.12	이중학	대양서적	551	세계사상대전집 37
3	1981.7	허문열	동서문화사	334	World's Great Books 109
4	1982.2	김홍철	삼성출판사	429	세계사상대전집 16
5	1982.6	허문열	범한출판사	671	세계사상대전집 21
6	1982.7	권영길	양우당	상454, 하463	세계병법대전집 7, 8
7	1983.6	허문열	학원출판공사	671	세계사상대전집 20
8	1987.3	이중학	일조각	274	
9	1990.5	맹은빈	일신서적	310	세계교양사상백선 17
10	1991.5	강창구	병학사	상469, 하470	
11	1993.2		합동참모본부	상454, 하463	
12	1998.6	류제승	책세상	529	Military Classic 3

출판사별로 책의 형식적 특징을 보면 아래와 같다.

〈표 2〉 「전쟁론」 번역서의 형식적 특징

1	하서출판사	세로쓰기, 한 쪽에 위아래로 두 줄, 하권 마지막에 간략한 문헌해제 있음
2	대양서적	세로쓰기, 한 쪽에 위아래로 두 줄, 클라우제비츠의 생애와 사상에 관한 해설이 55~66쪽에 있음, 문헌해제 없음, 초역(抄譯)
3	동서문화사	세로쓰기, 한 쪽에 위아래로 두 줄, 해제가 3~15쪽에 있음, 문헌해제 없음, 5편 전부와 다른 부분의 일부 제외하고 번역
4	삼성출판사	세로쓰기, 한 쪽에 위아래로 두 줄, 클라우제비츠의 생애와 「전쟁론」에 관한 해설이 14~33쪽에 있음, 문헌해제, 원전(독어) 번역, 영역 참조, 일부 제외하고 번역
5	범한출판사	세로쓰기, 한 쪽에 위아래로 두 줄, 15~27쪽에 해제, 문헌해제 없음, 5편 전부와 다른 부분의 일부 제외하고 번역
6	양우당	하서출판사 판과 동일
7	학원출판공사	범한출판사 판과 동일
8	일조각	가로쓰기, iii~xv쪽에 해설, 1편과 8편 완역, 나머지 초역, 문헌해제 없음
9	일신서적	가로쓰기, 문헌해제 없음, 역자의 말 없음, 초역
10	병학사	가로쓰기, 하권 끝 457~463쪽에 역자의 말과 후기 있음, 역자 후기에 문헌해제 있음, 일어판과 독어판을 토대로 번역
11	합동참모본부	역자 미상, 세로쓰기, 한 쪽에 위아래로 두 줄, 출판연도와 출판사 없음, 상권 표지에 '합참요원필독도서'라고 쓰여 있음. 책 안에 '육군 합동참모의장 육군대장 이필섭'의 이름과 사진, 그리고 1993년2월이라는 날짜가 보임
12	책세상	가로쓰기, 클라우제비츠와 「전쟁론」에 관한 해설이 471~519쪽에 있음, 찾아보기 있음, 문헌해제 있음, 독어의 발췌본 사용

이 표를 설명하기 전에 두 권의 「전쟁론」을 언급해야 한다. 민음사에서 1991년에 나온 「전쟁론」은 김홍철의 저서이며, 한원에서 1994년에 나온 「전쟁론」은 윤형호의 저서다. 이 두 책은 클라우제비츠의 「전쟁론」을 번역한 책이 아니다.

위의 두 표를 자세히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첫째, 같은 번역자가 반복해서 나온다. 둘째, 출판사가 다른데도 책의 페이지가 같은 책이 몇 권 있다. 셋째, 같은 형식으로 편집된 책이 몇 권 보인다. 이를 자세히 설명하면 아래와 같다.

먼저 ‘합동참모본부’의 번역본을 보도록 하자. 이 책은 하서출판사 판과 양우당 판의 해적판이다. 말 그대로 ‘복사’를 했다. 역자의 이름조차 없다. 하권의 457~463쪽에 해설과 간략한 문헌해제가 있고, 여기에 독어판을 원본으로 삼고 일어판을 참고로 하였다고 되어 있다. 하지만 이 책 자체가 복사판이기에, 이 말은 전혀 의미를 갖지 못한다. 국방부가, 그러니까 ‘정부’가 복사판을 냈다는 말이다. 그것도 ‘합참의장’의 이름으로 복사판을 냈다는 사실에 나는 아연실색하지 않을 수 없다. 사실, 나는 정부에서 이와 비슷한 일을 저지른(?) 것을 몇 건 더 알고 있다. 저작권, 번역권, 출판권에 대한 개념과 인식이 전무한데서 나오는 행태다. 앞으로는 개선되리라는 희망(?)을 갖는다.

‘합동참모본부’ 판의 원조가 되는 판이 1972년에 나온 하서출판사 판이다. 내가 아는 한, 이게 한국어로 된 최초의 「전쟁론」 번역본이다. 또한 이것만이 완역판이다. 이 책은 독어판을 원전으로, 일어판을 참고로 사용했다고 말하고 있다. 하지만 일본어판의 중역(重譯)이라는 사실을 한 눈에 알 수 있을 만큼 일어투의 용어와 문장, 문체들이 난무하고 범람하고 있다.²⁾ 「전쟁론」 오역(誤譯)의 서막을 알

2) 이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시노다 히데오 역, 「전쟁론」, 이와나미 1968년 판을 참고하기 바란다.

리는 책이다. 사실 이후의 거의 모든 번역은 이와 대동소이하다고 말할 수 있다. 이와 상당히 다른 번역으로는 김홍철(삼성출판사), 허문열(동서문화사), 그리고 류제승(책세상) 정도를 들 수 있다.

허문열의 번역이 세 권 보인다. 동서문화사와 범한출판사, 그리고 학원출판공사에서 낸 책이다. 그런데 이 세 책은 페이지까지 똑같다.³⁾ 말하자면 「전쟁론」의 출판권이 동서문화사에서 범한출판사로, 그리고 범한출판사에서 다시 학원출판공사로 이동한 것이다. 사실, 말이 좋아 출판권의 이동이지, 간단히 말하면 ‘지형(紙型)을 팔았다’는 얘기다. 과거에는 한 출판사가 망하거나 새로 생길 때, 또는 출판계에 새로운 틈새시장이 보일 경우에, 지형을 서로 쉽게 사고 팔았다. 역자는 여기에 전혀 또는 거의 개입하지 못한다. 출판사끼리 ‘해결하는’ 문제였다. 저작권 및 판권 개념이 전무할 때 얘기다.

맹은빈이 번역한 일신서적 판은 허문열이 번역한 동서문화사 판과 매우 비슷하다. 용어나 접속사를 바꾼다든지, 문장을 다소 바꾼 흔적이 보인다. 따라서 일신서적 판도 거의 표절 수준이다. 이를 통해 다음과 같은 공식이 성립한다.

공식 1) 동서문화사=범한출판사=학원출판공사≈일신서적출판사

페이지가 똑같은 경우가 또 있다. 하서출판사 판과 양우당 판이다. 이는 출판권이 이동한 경우다. 합동참모본부 판은 둘 중 하나를 그대로 복사하였다. 여기에 강창구가 번역한 병학사 판은 이 세 판과 매우 비슷하다. 위의 권영길 판과 맹은빈 판이 비슷한 것보다 더 비슷하다. 아래에서 예를 들어 볼 것이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3) 물론 동서문화사 판은 본문이 31~326쪽까지고, 범한출판사 판과 학원출판공사 판은 365~660쪽까지다. 하지만 둘 다 총 296쪽으로 복사판이다. 그대로 찍었다. 범한출판사판과 학원출판공사 판이 동서문화사 판과 쪽수가 다른 것은 그 앞에 「잡언과 성찰」, 「인간성적론」 등 다른 글이 있기 때문이다.

병학사 판은 거의 완전한 표절 수준이다. 이로부터 역시 다음과 같은 공식이 성립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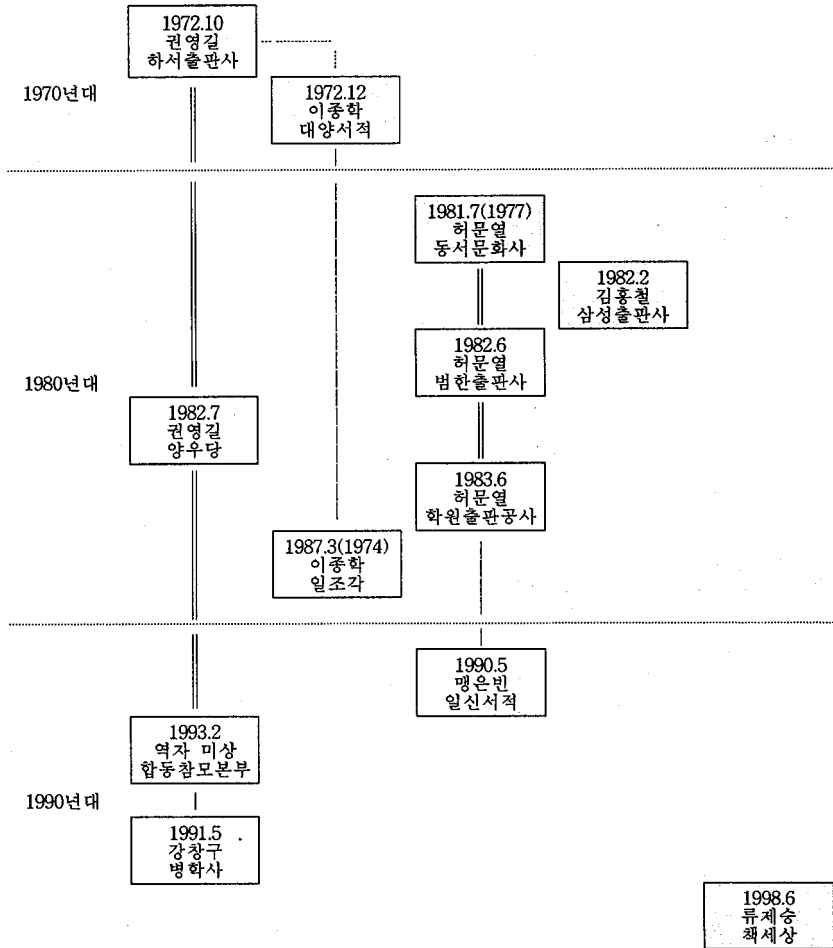
공식 2) 하서출판사=양우당=합동참모본부≈병학사

출판사는 다른데 역자가 같은 경우가 또 있다. 대양서적 판과 일조각 판이다. 두 책도 거의 같다. 용어를 바꾸거나 띄어쓰기에서 차이가 보인다. 그런데 일조각 판의 분량이 대양서적 판에 비해 너무 적어 아래에는 대양서적 판을 참고할 것이다. 결국, 여기서도 다음과 같은 공식이 가능하다.

공식 3) 대양서적≈일조각

지금까지 살펴본 「전쟁론」 번역본의 실태와 공식 1), 2), 3)을 통해, 아래에 「전쟁론」 번역서의 같음과 비슷함을 표로 만들었다. 출판연도, 번역자, 출판사의 순서로 정리하였다. 시대별로 일목요연하게 파악할 수 있게 되었다.

〈그림 1〉 「전쟁론」 번역서 표절 계통도



* 괄호안의 연도는 그 책의 초판 발행연도를 말함.

두 줄(=)은 완전히 같음을, 한 줄(-)은 비슷함을 나타낸다. 점선(---)은 비슷함이 한 줄(-)보다 약함을 나타낸다. 같음과 비슷함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 위 그림에는 합동참모본부 판과 병학사 판의

연도별 순서를 바꾸어 놓았다.

현재까지 우리말로 된 총 12권의 번역본에서 7권이 이전 번역과 완전히 같은 해적판이거나 적어도 매우 비슷한, 그래서 표절이라고 해도 될 만한 번역이다. 남는 건 다섯 권이다. 권영길(하서출판사), 이종학(대양서적), 허문열(동서문화사), 김홍철(삼성출판사), 류제승(책세상)의 번역이다. 위의 그림에서 진하게 표시한 책이다. 이제부터 다섯 권의(그리고 이 다섯 권만) 책의 내용별 특징을 살펴보도록 한다.

「전쟁론」은 3권 8편 125장으로 이루어져 있다. 책의 앞에 이 차례를 보여주어야 「전쟁론」의 전체적인 틀과 구조를 한눈에 파악할 수 있다. 그런데 위의 다섯 권 중에서 4권에는 이 차례가 보인다. 대양서적 판에는 ‘편’의 차례만 보인다. 편이 8개밖에 되지 않아 이것으로 「전쟁론」의 구조를 파악하기에는 아무래도 부족하다.

하서출판사 판만 완역이고 나머지는 모두 초역(抄譯)이다. 원문을 대하기 어려운 독자에게 이러한 초역은 원문의 정신을 이해하는데 심각한 걸림돌이 된다.

거의 모든 번역에서 한 두 문장을 빼먹고 번역한 흔적이 보인다. ‘인간적인 실수’로 생각한다. 류제승은 생략한 부분을 표시해놓았다. 그런데 번역한 부분에도 한 두 문장이 빠져있다. 이러한 오류를 방지하려면 원문과 번역문을 꼼꼼히 대조하는 수밖에 없다고 생각된다. 시간이 요구되는 일이고, 시간만이 해결할 수 있는 일이다.

다섯 권 중에서 역자의 말과 달리 일어판을 원전으로 삼아 번역했으리라고 추측되는 책은 대양서적 판과 하서출판사 판이다. 위에서 말했다. 두 책은 글이 주는 느낌이 상당히 비슷하다. 용어를 다르게 골랐다고 해도, 문장의 길이와 틀이 비슷하다. 어감도 상당히 유사하다. 둘 다 상당히 ‘국어답지’ 않은 용어와 개념이 사용되고

있다. 두 책의 이러한 유사점은 위의 그림에서 점선으로 표시하였다.⁴⁾

독어와 영어를 중심으로 번역했으리라고 추측되는 글은 삼성출판사, 동서문화사, 책세상 판이다. 책세상 판은 주로 독어를 원전으로 사용한 것으로 생각된다.

삼성출판사 판을 보면, 아마 이해를 돕는다는 명목으로 그랬을 테지만, 원문에 없는 글을 지나치게 많이 삽입해, 번역인지 창작인지 분간이 안될 정도로 문장이 길다. 이해가 될 때까지, 이해가 되는 국어가 될 때까지 한 문장 한 문장을 ‘하염없이’ 늘여 번역했다. 문장이 무지막지하게, 그리고 ‘잔인할 만큼’ 길다.

가장 ‘문학적인’ 번역은 동서문화사 판이다. 이 번역본은 어느 판을 텍스트로 삼았는지 말이 없어 알 수가 없다. 하야간, ‘과감하게’ 삭제하고 ‘창작하여’ 의역을 하였다. 그래서 번역글이라는 점을 가장 느끼기 어려운 문체다. 상당히 우리말같이 느껴진다. 그런데, 나는 이것이 클라우제비츠의 의도를 살린 것인지 아닌지 말할 자신이 없다.

가장 ‘과감한’ 번역은 류제승의 번역이다. 한 단어를 초지일관 같은 우리말로 옮겨놓았다. 하지만 Spiel(game, play, gamble)이 항상 도박은 아니며, Entscheidung(decision)이 항상 결전(決戰)은 아니다. 문맥에 따라서 다른 우리말로 옮겨야 한다. 사실 류제승의 초지일관도 가끔 초지일관을 벗어난 ‘초지일관’이다. 다른 곳에서 가끔 다른 말로 옮겨놓았기 때문이다.⁵⁾ 류제승의 번역은, 가장 나중에 한 번역이 가장 좋은 번역은 아니라는 증명이 되어준다. 아쉬운 일이

4) 따라서 엄밀하게 말하면, 「전쟁론」 번역에서는 권영길, 허문열, 김홍철, 류제승의 번역만 보면 된다.

5) 다른 곳에서 허문열은 Entscheidung을 ‘결승’으로 번역했다. 전쟁이 ‘축구시합’도 아닌데, 사람이 죽고 사는 문제인데, 결승은 너무 ‘스포츠스러운(?) 용어같이 보인다.

다. 또한 원문을 텍스트로 삼은 번역이 일본어의 중역보다 결코 더 낫지 않을 수도 있다는 증거가 되어준다. 이 또한 아쉽다. 이전의 많은 번역을 참고하지 않았다는 것도 학자가 경계해야 할 게으름이다.

모든 번역이 공통적으로 어렵다. 나의 천학비재(淺學非才)를 기준으로 삼을 수밖에 없지만, 나로서는 글이 너무 어려워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는다. 이해가 되더라도 이해를 위해 치러야 하는 시간과 노력이 너무 크다.

한글이 어려워 영역(英譯)을 보려는 사람에게 한마디 하고자 한다. 「전쟁론」 원문은 문장 하나하나가 대개의 독일어 문장처럼 상당히 길다.⁶⁾ 또한 문장의 길고 짧음을 떠나 원문 그 자체로 다소 난해한 책이다. 탈고되지 않았다는 이유 말고 또 다른 이유가 있다면, 그것은 저자가 변증법의 방법을 이용해 개념과 이론체계를 전개하고 있기 때문이다. 영역은 원문의 '변증법'을 대부분 제거해 버렸다. 그래서 나는, 영역이 제대로 된 번역이라는 확신이 서지 않는다. 우리말 오역과 마찬가지로 영역본도⁷⁾ 「전쟁론」의 많은 오역 중의 하나가 아닐까 생각하게 되었다.

3. 이해 유감

지금까지 설명한 번역서의 특징과 문제점을, 주로 「전쟁론」 제1권 제1편에 나오는 몇 개의 실례를 통해 지적해보고자 한다.

6) 그렇다고 김홍철의 문장처럼 길다는 말은 아니다.

7) 내가 참고한 영역본은 Michael Howard와 Peter Paret가 번역하고 편집한 Carl von Clausewitz, On War, Alfred A. Knopf, 1993년 판이다. 이 책이 전에 Princeton University Press에서 출판되던 책이다.

우리의 연구 주제와 관련된 개별 요소들과 개별 부분들을 사유하고, 이어서 최종적으로 내적 연계하에 전체를 고찰하고자 한다.(류제승, 33)⁸⁾

이 번역의 원문 및 영역은 다음과 같다.

Wir denken die einzelnen Elemente unseres Gegenstandes, dann die einzelnen Teile oder Glieder desselben und zuletzt das Ganze in seinem inneren Zusammenhange zu betrachten.(27쪽)⁹⁾

I propose to consider first the various elements of the subject, next its various parts oder sections, and finally the whole in its internal structure.(83쪽)¹⁰⁾

「전쟁론」 본문의 첫 문장이다. 여기서 는 주제를 연구한다, 살펴본다는 표현을 '사유'나 '고찰'의 어려운 말로 옮겼다. '살펴본다'고 해도 충분할 것이다. 둘째, 우리말은 구미(歐美)의 언어처럼 단수와 복수의 구별이 명확하지 않다. '요소들'과 '부분들' 대신에 '요소'와 '부분'으로 번역해도 될 것이다. 다른 부분에서는 류제승이 이러한 단수와 복수의 구분을 엄격하게 유지하지 않았다는 것이 또 다른 이유다. 그 예는 너무 많아 들지 않는다. 셋째, 이것이 가장 중요한데, 하나의 연구주제를 먼저 개별적으로 살펴보고, 다음에 그것들이 모인 부분을 살펴보며, 마지막으로 전체를 살펴본다는 변증법적 고찰방식이 류제승의 번역에는 희미하고 애매하게 처리되어, 결국 무시되었다. 연구대상을 개별성-특수성-일반성 또는 하나-부분-전체

8) 다섯 개의 번역본은 역자의 이름과 쪽수만 밝힌다.

9) 원문도 쪽수만 적는다. 이 쪽수는 Carl von Clausewitz, 1832~32, Vom Kriege -hinterlassenes Werk; ungekürzter Text, Ullstein 1999년 판의 쪽수를 나타낸다.

10) 이 페이지도 위에서 말한 영역본의 페이지다.

라는 전개방식으로 연구하는 것이 변증법의 형식에서 핵심이다. 류제승도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전쟁론」은 “전반적으로 다양한 관점에서 심원하고 완벽하게 논술되었기 때문에 철학적·변증법적 사유방식에 대한 지식 없이는 전개되는 논리를 충분히 이해하기 어렵다.”(류제승, 497~498) 이 말은 바로 류제승에게 해당하는 말이다. 이러한 점을 고려해 나는 아래와 같은 번역을 제안한다.

이 주제를 다루는데 있어서 먼저 하나의 요소를, 다음으로 그 요소가 모여 이루어진 부분이나 부분을, 마지막으로 전체를 그 내적 연관성에 유의하여 살펴볼 생각이다.

다른 번역에는 ‘전쟁문제를 해명하는 데 있어서’(권영길, 27), ‘전쟁이라는 문제를 고찰함에 있어서’(이종학, 71), ‘전쟁이란 주제를 다룸에 있어’(김홍철, 53) 등으로, 모두 ‘전쟁’을 넣었다. 「전쟁론」 제1장의 제목이 ‘전쟁이란 무엇인가?’이기 때문에 클라우제비츠가 말하는 ‘주제’는 당연히 전쟁이다. 따라서 본문에 없는 ‘전쟁’을 넣는 것은 중복이 된다. 빼도 될 것이다.

다음에도 역시 내용의 이해와 관련되는 번역이다. 다섯 권의 책에서 같은 부분을 모두 한꺼번에 보도록 하겠다. 그 원문과 영역을 먼저 밝힌다.

Wollen wir den Gegner niederwerfen, so müssen wir unsere Anstrengung nach seiner Widerstandskraft abmessen; diese drückt sich durch ein Produkt aus, dessen Faktoren sich nicht trennen lassen, nämlich: die Größe der vorhandenen Mittel und die Stärke der Willenskraft.(30쪽)

If you want to overcome your enemy you must match your effort against his power of resistance, which can be expressed as the product of two inseparable factors, viz. the total means at his disposal and the strength of his will.(86쪽)

이 문장에 대한 우리말 번역을 보이면 아래와 같다.

적을 타도하려면 우선 적의 저항력을 알고 그것에 따라 우리가 발휘해야 할 힘을 가감(加減)해야 한다. 적의 저항력이라는 것은 분리할 수 없는 두 개의 요소로 되어 있다. 그 하나는 기존(既存)하는 자재(資材)의 양(量)이요, 또 하나는 의지력의 강력도(強力度)이다. (권영길, 31)

적을 타도(打倒)하기를 바라는 자는 먼저 적의 저항력을 알고, 그것에 의하여 자기의 힘을 발휘해야 하는 비율(比率)을 정하지 않으면 안된다. 적의 저항력은 분리하기 어려운 두 가지 요인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즉 하나는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수단의 범위와 다른 것은 의지의 힘이다.(이종학, 74)

적을 타도하려면 무엇보다도 먼저 적의 저항능력을 알고, 거기에 알맞게 우리의 노력(힘)을 증대하고 조절해 나가야만 한다. 적의 저항능력은 서로 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두 가지 요인을 산출해 봄으로써 명백히 알 수 있다. 그 요인의 하나는 활용 가능한 제수단(諸手段)의 총량(總量)이고, 다른 하나는 의지의 강도(強度)이다.(김홍철, 57)

적을 분쇄하기 위해서는 먼저 적의 저항력을 알고, 거기에 따라 우리들 노력의 정도를 정해야 한다. 적의 저항력은 서로 분리하기 어려운 두 가지 요인으로 성립되어 있다 - 하나는 지금까지 있었던 모든 수단의 대소(大小)이고, 또 하나는 의지력의 강약이다.(허문열,

35)

적을 타도하고자 한다면 적의 저항능력을 고려하여 우리의 노력을 판단해야 한다. 이 노력은 서로 분리될 수 없는 요인, 즉 현존 수단의 규모와 의지의 강도로 구성된 산물을 통해 표현될 수 있다. (류제승, 37)

나는 아래와 같은 번역을 제안한다.

적을 물리치려면, 적의 저항능력에 따라 우리의 노력을 조절해야 한다. 적의 저항력은 분리될 수 없는 두 요소, 즉 현존하는 수단의 규모와 의지력의 강도(強度)의 곱으로 표현된다.

두 개의 요소(현존하는 수단의 규모와 의지력의 강도)가 곱해져서 (또는 적어도 합해져서) 적의 저항력이 형성된다는 측면은 권영길과 이종학의 번역에는 전혀 나타나지 않는다. 이종학, 김홍철, 류제승은 ‘이루어진다’거나 ‘성립된다’ 또는 ‘구성되었다’는 표현으로 이를 나타내고 있지만, 매우 약하다. 위의 문장은 적의 저항력에 두 요소가 있다는 말이라기보다, 그 두 요소가 한데 합쳐야, 나아가 곱해져야 적의 저항력이 (제대로) 표현된다는 말이다.

또한 원문은 우리(아군)의 노력이 아니라 적의 저항력이, 적이 ‘현재 갖고 있는 수단의 규모 곱하기 의지력의 강도’로 표현된다고 말하고 있다. 이 점에서 류제승의 번역은 오류다.

이종학(2002 및 2002a)은 최근에, 「전쟁론」의 내용과 관련하여 매우 중요한 문제를 언급하였다. 이 두 논문에서 중요하지 않은 것을 빼고 중요한 것만 한마디로 줄여 말하면, Verstand(Understanding)는 오성(悟性)으로 번역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성, 지성, 지력

(智力), 모두 안된다는 것이다. 칸트(I. Kant)에 따르면, 오성은 경험할 수 있는 현상세계의 영역을 담당하는 인식능력이고, 이성(理性)은 경험이 미치지 않는, 또는 감각적 경험과 관계가 없는 실체 세계의¹¹⁾ 영역을 담당하는 인식능력이라는 것이다. 이 모든 칸트의 철학을 종합하고 요약하여, 이종학은 아래와 같이 번역하였다.

셋째, 전쟁은 전적으로 오성(悟性)의 영역에 속한다는 것을 통하여 정치적 도구로서의 종속적 성격이다.(이종학, 2002a: 164)

이 글의 원문과 영역은 다음과 같다.

und aus der untergeordneten Natur eines politischen Werkzeugs, wodurch er dem bloßen Verstande anheimfällt.(46쪽)

and of its element of subordination, as an instrument of policy, which makes it subject to reason alone.(101쪽)

첫째, 내가 이종학의 번역글을 이해할 수가 없다. 이성(理性)이든 오성(悟性)이든 문장이 이해가 되지 않는다. 국어가 되지 않기 때문이다. 위 문장의 서술어는 ‘종속적 성격이다’, 더 줄여 말하면 ‘성격이다’이다. 그런데 이 서술어의 주어(主語)가 없다. ‘전쟁은’이 주어 같지만 이는 ‘속한다’는 서술어의 주어다. 이 문장 전체의 서술어는 ‘성격이다’이다. 그런데도 만약 ‘전쟁은’을 문장 전체의 주어(主語)로 삼으면, 이는 ‘전쟁은 … 성격이다’라는 문장이 된다. 이진 ‘사람은 성격이다’와 마찬가지로 문장이 되지 않는 문장이다. 한마디로 비문(非文)이다. ‘전쟁은 어디어디에 속한다’나 ‘전쟁은 정치적 도구이다’는 문법적으로 말이 되고 글도 되지만, ‘전쟁은 성격이다’는 말이 되지 않

11) 실체의 세계가 무엇인가? 실체(實體)가 무엇인가?

는다. 그래서 내가 이 문장을 아래와 같이 ‘친절하게’ ‘국어화’하였다.

- (1) 전쟁은 전적으로 오성의 영역에 속한다는 것을 전제로 할 때, 전쟁은 정치의 도구이며, 그 성격은 종속적이다.
- (2) 전쟁이 전적으로 오성의 영역에 속한다고 할 때, 전쟁은 정치적 도구로서 종속적 성격을 갖는다.
- (3) 전쟁이 오로지 오성의 영역이라고 할 때, 전쟁은 정치의 도구가 되며, 정치에 대한 관계는 종속적이다.

대충, 이 셋 중에 어느 하나가 되어야 이종학의 의도도 뚜렷해질 것이다. 문장도 되고 그래서 국어도 된다. ‘이성’이나 ‘오성’이나 하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그것도 말이 되고 글이 되는 문장을 만들어 이해하고 나서 얘기지, 문장 자체를 이해할 수 없을 경우에는 다 소용없는 얘기다. 그래서 두 논문을 통해 주장했는데도, 어색한 문장 때문에 이종학의 번역이 일어를 직역한 것 같은 인상을 풍기게 된다. 아래는 그 글에 대한 나의 번역이다.

셋째, 전쟁은 정치적 도구라는 종속성을 띤다. 이로 말미암아 전쟁은 순전히 이성의 영역에 속하게 된다.

나는 오성(悟性)이, 일상적으로 사용되지도 않고 쉽게 가슴에 와 닿지도 않으며 얼른 이해가 되지도 않는 단어라고 보아, 그냥 이성으로 옮겼다. 오성이 아니고 이성으로 옮겼기 때문에 「전쟁론」의 번역이나 이해에 무슨 사단(事端)이 일어나리라고는 생각하지 않는다. 전쟁은 정치의 도구이며 따라서 정치의 일부라는 성격을 갖기 때문에, 전쟁에는 이성적으로 처리하고 해결해야 하는 부분도 있다

는 의미로 이해하면 크게 틀리지 않을 것이다. 이종학도 Verstand
를 오성이 아니고 지성으로 번역한 곳이 몇 군데 보인다.

이것이 전쟁의 삼중성(三重性, Dreifaltigkeit)의 세 번째 측면인데,
첫째와 둘째는 전쟁에 포함되어 있는 맹목적 증오감과 우연이라는
요소다. 반드시 이 세 가지가 모두 모여야 전쟁이 일어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삼중성을 '삼위일체'로 옮기는 것도 문제가 있다고
생각한다.

이종학이 말하는 오성 및 이성과 관련하여 다른 부분에서 클라우
제비츠는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So finden in dem abstrakten Gebiet des bloßen Begriffs der
überlegende Verstand nirgends Ruhe, bis er an dem Äußersten
angelangt ist, weil er es mit einem Äußersten zu tun hat, mit
einem Konflikt von Kräften, die sich selbst überlassen sind, und
die keinen anderen Gesetzen folgen als ihren inneren.(31쪽)

영역은 원문을 상당히 훼손시켰다.

Thus in the field of abstract thought the inquiring mind can
never rest until it reaches the extreme, for here it is dealing
with an extreme: a clash of forces freely operating and obedient
to no law but their own.(86쪽)

이를 이종학은 다음과 같이 번역했다.

이와 같이 순수한 개념(概念)만을 다루는 추상적 영역(抽象的 領
域)에 있어서 오성(悟性)은 극한(極限)에 이르기까지 멈추어야 할

곳을 알지 못한다. 여기서 오성이 문제로 삼는 것은 언제나 힘의 극한적인 사용이며 다시 말하면 오성이 그 상호관계를 다루고 있는 힘은 다만 자기 자신에만 의존하고 있고, 자기 자신의 내재적 법칙을 따르는 외에 아무런 외부적인 법칙에 따르지 않기 때문이다.(이종학, 74)

이 문장의 내 번역은 아래와 같다.

순수 개념의 추상적 영역에서, 깊이 생각하는 이성은 극단에 도달할 때까지 자신의 활동을 멈추지 않는다. 이성은 극단과 관계가 있기 때문이다. 또한 자유로운 힘들 간의 충돌과 관계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 힘은 자신의 내적 법칙 외에 다른 어떤 법칙도 따르지 않는다.

오성이 순수개념의 추상적 영역에 있다면, 이는 이종학에 따르면 형용모순이다. 오성은 경험세계에 있어야 한다. 극단과 관련되어 있고, 자유로운 힘들 간의 충돌과 관련되어 있는 것도 경험세계와는 거리가 먼 서술이다. 경험세계에는 두 힘이나 세력의 충돌에 많은 제한이 따르며, 따라서 그것은 이러한 제한과 조건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

요는, 이성이나 오성을 가지고 따지기보다 (그것을 따지는 것이 중요하지 않다는 말은 결코 아니다) 먼저 말이 되고 '국어'가 되는, 그래서 이해가 되는 문장을 만들어야 한다는 말이다. 「전쟁론」의 개념과 내용, 이론체계에 대한 토론과 논쟁은 모두 그 이후의 일이다.

4. 문장 유감

이해가 되는 문장으로 번역하는데 가장 중요하고 핵심적인 모토는 ‘문장을 짧게’ 만드는 것이다. 번역이 아니고 우리글을 쓸 때도 마찬가지다. 문장은 이해가 되는 범위에서 짧을수록 좋다. 뒤집어 말하면, 긴 문장은 이해하기가 어렵다. 이를 역논리로 말하면, 무슨 말인지 알 수 없게 (번역)하려면 한 문장을 ‘하염없이’ 길게 늘이면 된다.

여기서 살펴보는 다섯 권의 「전쟁론」 번역서에서 김홍철의 번역은 이 점에서 단연 으뜸이다. 이해의 측면에서 보면, 김홍철의 번역만큼 이해가 잘 되는 번역도 없다. 그래서 더욱, 긴 문장이 아쉽게 느껴진다.¹²⁾ 아래에 예를 든다.

그렇게 될 때 전자는 후자에게 자기의 의지를, 즉 자신의 법을 강제하게 되는 것이다. 그렇지만 쌍방이 상호간에 동일한 수법의 상대적인 힘의 사용행위를 교환·구현한다면 결국 쌍방간의 힘의 사용은 그 사용량의 정도에 따라서 점차적으로 극한상태에로 발전·도달하게 되는 것이 보통이다. 다만 쌍방의 힘의 사용이 위와 같은 극한상태로 발전하지 못하도록 하는 유일한 제한요소라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쌍방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대응능력(즉, 상대방에 대한 제압능력)의 총량에 의하여 강제되는 장치들이 있을 뿐이다.(김홍철, 54)

일상적으로 ‘해도 너무 한다’는 표현은 이런 번역에 해당하는 것

12) 김홍철의 번역에는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는, 그래서 전혀 납득할 수 없는 부분이 다소 보인다. 김홍철이 그렇게 번역하지 않은 것이라면, 추측을 말해서 미안하지만, 아마 대학원생이 대신 번역한 것이 아닌가 짐작된다.

이 아닐까 생각한다. 번역인지 창작인지, 왜 이렇게 하염없이 길어야 하는지, 나로서는 이해 불능이다. 나의 번역과 원문, 영역을 차례로 소개한다.

이를 통해 한쪽은 상대방에게 자신을 따르도록 강요하고, 양측의 폭력 행사는 극에 달할 때까지 상승한다. 여기에는, 전쟁에 고유한 힘의 균형이라는 한계 외에 다른 한계는 없을 것이다.

Dadurch gibt er dem anderen das Gesetz, und so steigern sich bis zum äußersten, ohne daß es andere Schranke gäbe als die der innenwohnenden Gegengewichte.(28쪽)

That side will force the other to follow suit; each will drive its opponent toward extremes, and the only limiting factors are the counterpoises inherent in war.(84쪽)

이어지는 문장도 마찬가지다.

전쟁의 본질문제, 즉 힘의 극대사용 문제는 이러한 방식으로 관찰하여야만 하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전쟁 본연의 가장 실질적이고 현실적인 성질의 고려를 외면할 경우에는 하등의 목적도 없는, 더 나아가서는 스스로의 이익마저도 거역하는 무의미한 일이 되는 것이다.(김홍철, 54~55)

So muß man die Sache ansehen, und es ist ein unnützes, selbst verkehrtes Bestreben, aus Widerwillen gegen das rohe Element die Natur desselben außer acht zu lassen.(28쪽)

This is how the matter must be seen. It would be futile - even wrong - to try and shut one's eyes to what war really is from sheer distress at its brutality.(84쪽)

원문이나 영어는 짧고 분명하다. 마찬가지로 짧고 분명하게 우리말로 옮기는 일은 물론 쉽지 않다. 하지만 김홍철처럼 무지막지하게 늘이는 것도 본문의 정신에 충실했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이다. 나의 번역은 아래와 같다.

문제는 이렇게 보아야 한다. 전쟁의 잔인함에 대한 혐오 때문에 전쟁의 본질을 무시하려 한다면, 이는 헛되고 잘못된 노력이다.

5. 용어 유감

다음으로 용어의 문제를 지적하려 한다. 먼저 독일어의 Volk(복수 Völker)이다. 모든 책에서 이를 '국민'으로 번역하고 있다. 허문열은 '용감하게' 아예 '국가'로 번역했다. 클라우제비츠가 「전쟁론」을 쓸 당시, 독일 땅에는 아직 (통일)국가가 존재하지 않았다. 따라서 국가도, 국가의 인민이라는 뜻으로 쓰이는 국민도 존재할 수 없다. 게르만 민족이 존재할 뿐이다. 국어로 보아도, '국민'은 한편으로는 '황국신민'을 떠올리며, 다른 한편으로는 '국가 우선주의'를 떠올린다. Volk의 가장 적절한 번역어는 '민족'이다. 많지는 않지만, 인민으로 번역해도 괜찮은 경우가 있다.

용어의 문제인지 독어의 문제인지 확신이 서지 않지만, 아래와 같은 예도 있다.

여기서 전투력이란 자국의 군사력, 지표물과 국민으로 구성된 국토 그리고 동맹국이다.(류제승, 41)

원문과 영역은 다음과 같다.

Diese Kräfte sind: die eigentlichen Streitkräfte, das Land mit seiner Oberfläche und Bevölkerung und die Bundesgenossen.(33 쪽)

The resources in question are the fighting forces proper, the country, with its physical features and population, and its allies.(88쪽)

전투력에 군사력과 국토, 동맹국이 포함된다? 전투력보다 군사력이 더 광범위한 개념이 아닌가? 전투력은 전투를 할 수 있는 힘이나 능력이다. 군사력은 군대와 군비(軍備) 등을 종합한 전쟁수행능력이다. 따라서 군사력이 전투력보다 더 광범위한 개념이다. 전투력은 군사력에 포함되는 개념이다. 그런데 군사력이 어떻게 전투력에 포함될 수 있을까?

또한 국토가 전투력일 수도 없을 것이다. 따라서 Kräfte는 힘이나 자원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이는 용어와 단어를 너무 '군사적으로' 번역한 결과다.

재미있는 번역은 두 번째 부분이다. '지표물과 국민으로 구성된 국토'? 지표물? 국민? 너무 이상하다. 특히 지표물은 너무나 이상하다. 물론 Oberfläche는 표면, 지구의 표면, 물의 표면 등을 가리킨다. 그렇다고 지표물은 전혀 아니다. 또한 Bevölkerung도 전혀 국민이라고 할 수 없다. 인구가 맞다. 죄송한 말이지만, 역자의 독어 수준을 엿볼 수 있는 대목이다.¹³⁾ 이 부분을 우리말로 하면 '(일정한) 땅덩어리와 인구를 갖는 나라'라는 의미다. 그리고 이것이 한 나라가 갖고 있는 힘 또는 자원이라는 말이다. 국토나 면적, 인구 등 한자말이 포함되었지만, '국토의 면적과 인구'가 가장 무난하고 적절한 번역이다. 나의 번역을 소개한다.

13) 진석용(2002)도, 번역에서 이렇게 엉뚱한 용어를 쓰는 것은 해당 언어 능력이 부족하기 때문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여기서 힘(자원)이란 본래의 전투력, 국토의 면적과 인구, 그리고 동맹국을 말한다.

역시 용어의 문제인지 독어의 문제인지 분간이 어렵지만, 다소 '즐거움' 번역을 소개한다.

왜냐하면 전쟁이라는 것은 본시 위험한 것으로 이것을 논하는 데 부녀자(婦女子)와 같은 인정을 가지고 하는 것처럼 무서운 오류는 없기 때문이다.(권영길, 28)

원어와 영역을 함께 보이면 다음과 같다.

denn in so gefährlichen Dingen, wie der Krieg eins ist, sind die Irrtümer, welche aus Gutmütigkeit entstehen, gerade die schlimmsten.(28쪽)

war is such a dangerous business that the mistakes which come from kindness are the very worst.(84쪽)

갑자기 '부녀자'가 나와, 나는 매우 당황했다. 독어나 영어 문장 어디를 보아도 '부녀자'는 없기 때문이다. Gutmütigkeit는 선량함, 온화함, 양순함, 마음씨가 좋음, 친절함이라는 의미다. 영어의 번역대로 kindness다. 다음과 같이 옮기는 것이 적절하고 또 타당하다.

전쟁과 같은 위험한 일에서 선량함 때문에 오류가 생긴다면, 그것이 바로 최악의 오류이기 때문이다.

오류 또한 '무서운' 게 아니고 가장 나쁜 오류라는 뜻이다. '가장

나쁜' 또는 '최악'이라고 번역하면 된다.

그런데 이 '부녀자'가 또 나온다.

그러므로 전쟁철학 속에 부녀자의 인정을 받아들인다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라고 평할 수밖에 없다.(권영길, 29)

나의 번역과 원문, 영역을 차례로 이어 보인다.

따라서 논리적 모순을 범하지 않고는, 결코 온건주의를 전쟁철학(이론) 자체에 도입할 수는 없다.

und nie kann in der Philosophie des Krieges selbst ein Prinzip der Ermäßigung hineingetragen werden, ohne eine Absurdität zu begehen.(28쪽)

To introduce the principle of moderation into the theory of war itself would always lead to logical absurdity.(84쪽)

Ermäßigung을 '부녀자의 인정'으로 번역한 것은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 마지막 부분, '논리적 모순을 범하지 않고는' 부분은 아예 빠져버렸다.

용어문제에서 라틴어나 희랍어에는 번역에 좀 더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일반적으로 독어보다 더 어렵기 때문이다. 예를 들면 "Norische Alpen"(134)을 하서출판사 판은 "알프스의 노레아로"(권영길, 171)로 번역했다. 대양서적 판은 "노리크·알프스"(이종학, 163~164)로 옮겨놓았다. '노레아로'든 '노리크'든 무슨 말인지 전혀 알 수가 없다. 알프스의 한 지명이 아닐까? 하지만 이것도 추측일 뿐이다. 삼성출판사 판은 "북부 알프스"(김홍철, 196)로 번역해놓았

다. 이는 Norische Alpen을 Nordische Alpen의 오기(誤記)로 본 결과다. 그렇다면 ‘북부 알프스’가 맞다. 하지만 그 부분은 오기가 아니다. 허문열과 류제승의 번역본은 초역이라 이 부분이 아예 없다. 영어판에도 그냥 “Norican Alps”(185)로 되어있을 뿐이다. 영어판도 도움이 안되기는 마찬가지다.

이와나미판의 일본어 번역에도 “ノーリック・アルプス”(上, 210)로 되어있다.¹⁴⁾ 그런데 이에 대해 “東部アルプスの一部”(上, 211)라는 주를 달아놓았다. 의미심장한 대목이다. ‘Norische Alpen’이 김홍철의 번역처럼 북부가 아니고, 혹시 동부가 아닐까 하는 추측을 가능케 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바로 이것이 Norisch에 맞는 번역이다. Nor는 라틴어 Noricum의 약자이며, 이는 독어로 Ostalpenland라는 뜻이다. 이를 직역하면 ‘동부 알프스 지방’이라는 말이 된다. 따라서 Norische Alpen은 ‘동부 알프스’ 또는 ‘알프스의 동부지역’으로 옮기는 것이 옳고 또 가장 적절하다.

Norische Alpen은 나폴레옹이 1797년 3월에 이탈리아의 원정군을 이끌고 오스트리아로 진격하는 부분에 나온다. 오스트리아가 알프스의 동쪽에 위치하고 있으니, 북쪽은 아무래도 지리적으로 어색하다. 또한 무슨 말인지 모르게, ‘노레아로’ 또는 ‘노리크’로 옮기는 것도 역자의 성의나 지식의 부족이며, 독자를 무시하거나 괴롭히는 처사다. 최소한 설명이나 주를 달아놓아야 한다.

용어의 문제는 아니지만 한 가지 더 언급하겠다. 원문에 나오는 도량형의 단위를 임의로 바꾸는 것도 번역에서는 경계해야 할 일이다.

그러나 그 길은 탄탄대로이고 역마(驛馬)를 이용할 수 있으며, 약

14) 이종학의 번역이 일본어판의 중역 내지 일본어판을 참고한 것이 아닌가 하는 추측을 가능하게 하는 부분이다.

七~八〇리의 거리밖에 안된다.(김홍철, 138)

八〇이 八十이 아닌 것도 이상하고, 독일 사람이 리(里)를 사용했다는 것도 어색하다. 원문과 영역, 나의 번역은 아래와 같다.

vier bis fünf Stunden mit Postpferden auf der Chaussee(86쪽)

Only four or five hours more, on a paved highway with relays of horses(138쪽)

역마를 타고 큰길로 가면 네다섯 시간쯤 걸린다.

느닷없이 70~80리가 나와 놀랐고, 역자의 창의력(?)에 감탄했다. 마차로 네다섯 시간 걸리는 거리가 약 70~80리가 된다는 것을 거꾸로 계산해야 했기 때문이다.

‘사소한’ 오류를 한 가지 더 지적하겠다. 대양서적 판과 거의 비슷해 살펴보지 않은 일신서적 판 61쪽에는 ‘카알 2세’가 나온다. 원문은 Karl XII이다. 그렇다면 ‘카알 12세’다. 역시 대양서적 판에는 제대로 되어 있다. 나중에 실수를 했다는 말이다. 나중에 나온 책이 먼저 나온 책보다 항상 좋은 책은 아니라는 증거가 여기서도 나온다. 물론 이는 사소한 실수다. 하지만 사소하기 때문에 더욱 이해하기 어려운 실수다.

6. 국어 유감

마지막으로 국어의 문제를 잠깐 살펴보겠다. 국어의 문제이면서, 가끔적 쉬운 우리말을 쓰려는 노력과 관련되는 문제다. 우리나라

사람들에게 우리말이 어렵지 않듯이, 독일 사람에게도 독일말은 어렵지 않다. 우리에게 한자가 어렵듯이, 그들에게는 고대 라틴어나 희랍어가 어렵다.

Augenmaß나 coup d'œil는 순수한 독어고 순수한 불어다. 그들에게는 쉬운 말이다. 이 불어는 '눈으로 치기', '눈의 일격'이 직역이다. 그들에게 쉬운 말을 목측(目測)이니¹⁵⁾ 혜안(慧眼)이니 하는 어려운 한자말로 옮기는 것은 적절치 않다. 두 언어간의 쉽고 어려움의 차이를, 어휘가 갖는 다양한 난해성의 차원을 무시한 처사다. 쉬운 독일말도 몽땅 어려운 한자말로 옮기는 것은 현학의 가장이거나 일어책의 번역이라는 반증밖에 안된다. 나는 '눈대중'을 제안한다.

또 다른 예가 있다.

그런 것은 마치 다른 사람의 마음을 촌탁(忖度)하여(권영길, 78)
denn, indem wir das tun, setzen wir uns an seine Stelle(66쪽)
This would amount to putting oneself in his position(118쪽)

촌탁? 한자공부를 전혀 하지 않은 것도 아닌데, 생판 처음 보는 단어가 또 나타났다. 무식을 절감하면서, 역시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 독어나 영어는 너무나 쉽다.

'그렇게 하면, 우리가 그의 입장이 되기 때문이다' 또는 '그렇게 하면, 우리가 그의 입장이 되어'로 번역해도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대목이다. 원문의 쉬운 말은 우리말로도 쉽게 옮겨야 한다. 어려운 표현이나 개념만 한자말로 옮기면 된다. 이런 결과가 나온 데는 다른 이유도 있다. 그건 바로 과거의 '독한사전'이다. 그 사전에 그런 어려운 말들이 나온다. 그런데 전에는 사전도 일어판을 참고하였으니, 결국 그 말이 그 말이다.

15) 사실 나는 목측(目測)이라는 표현을 여기서 처음 대했다.

뜻하지 않게 정보의뢰(情報依賴)를 받았을 때 적확(的確)한 대답을 하거나 돌연히 들이닥친 위협에 대하여 민속히 그 구제수단을 강구하는 것이 침착의 처사다.(권영길, 80)

여기서 ‘정보의뢰’는 Anrede를 번역한 말로 보인다. 그런데 Anrede는 인사말, 연설이라는 뜻이다. 또는 ‘말을 걸기’의 뜻으로서 상대와 대화를 시작할 때 쓰는 말을 가리킨다. 이게 어떻게 ‘정보의뢰’가 되었는지, 나의 모든 상상력을 초월한다. 모든 용어와 단어를 너무 ‘군사적으로’ 번역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 독어와 영역을 보도록 한다.

Man bewundert die Geistesgegenwart in einer treffenden Antwort auf eine unerwartete Anrede, wie man sie bewundert in der schnell gefundenen Aushilfe bei plötzlicher Gefahr.(67쪽)

We admire presence of mind in an apt repartee, as we admire quick thinking in the face of danger.(119쪽)

영역에는 Anrede가 아예 없다. 또한 원문을 많이 손상시켰다. 과감하게 의역하였다. 그래서 뜻이 더 분명하게 들어올지도 모르겠다. 하지만 원문의 어감과 느낌을 과감하게 무시하여, 독어의 입체적 느낌과 맛을 실증(주의)적으로 ‘납작하게’ 만들어버렸다. 여기뿐만이 아니다. 거의 모든 다른 부분에도 그렇다. 이 부분의 내 번역은 아래와 같다.

예기치 않은 연설에서 적절한 반응을 보이면, 사람들은 그 침착성에 감탄한다. 갑작스런 위협에 처해 신속한 조치법을 찾아냈을 때, 그 침착성에 감탄하는 것처럼 말이다.

이 외에도 이해하기 어려운 한자어는 무수히 많다. 마지막으로 두 개만 더 들겠다.

그러나 당시 혁명 전쟁에 독특한 전쟁 수행을 찰지(察知)한 이론이 있었던가?(이종학, 158)

오히려 이와 같은 방법주의는 한 시대의 전쟁의 특성이 개개 현상 위에 발현(發現)한 것으로서 작전의 이론이 재빨리 이러한 것을 자가약농중(自家藥籠中)의 것으로 하는 한 이러한 방법주의의 발생도 또한 어쩔 수 없는 것으로 보지 않으면 안된다.(권영길, 163)16)

‘찰지’? 살펴서 안다는 말일 거라고 짐작한다. 하여간 처음 보는 단어다. 그 문장도 이해가 안되는 것은 아니지만, 상당히 이해하기 어렵다. 그런데, 그 어떤 짐작과 추측으로도 알아낼 수 없는 말이 ‘자가약농중’이다. 그리고 그 단어가 들어있는 권영길의 문장은, 나로서는 절대로 그리고 결코 이해가 되지 않는다. 단어와 문장이 이쯤 되면, 글을 읽는 게 바로 ‘고문(拷問)’이다.

7. 맺음말

현재까지 「전쟁론」 번역은 이해하기 어려운 ‘국어’로 되어있다. 먼저 지나치게 ‘군사적인’ 번역이 보인다. 군사적인 용어와 개념에 너무 집착하지 않았나 생각한다. 그렇게 되면 언어를, 즉 독어를 무시하게 된다. 결과는, 일반인들이 이해할 수 없는 번역서로 나타난다.

16) 이 두 예의 원문, 영역, 나의 번역을 보여주는 것은 생략한다. 그 예만으로도, 쉬운 우리말을 써야 한다는 나의 의도는 충분히 전달되리라고 보기 때문이다.

다음으로 지나치게 ‘일어적(日語的)인’ 번역도 볼 수 있다. 과거 우리의 학문 수준이 낮았을 때, 일역(日譯)을 많이 참고한 건 사실이다. 하지만 같은 한자문화권이라고 해서, 일어가 우리에게 그냥 들어와서는 안된다. 그리고 일어라고 무조건 쉬운 것만도 아니다. 우리의 말법에 따라 고쳐 번역해야 한다. 앞으로 차츰 나아질 것으로 생각한다.

또한 지나치게 ‘미국적인’ 용어의 사용에도 한번 진지한 반성이 있어야 할 것으로 생각한다. 미국식 용어와 개념은 미국에 맞고 미국에 적합하다. 한국에는 잘 맞지 않는다. 「전쟁론」 번역에도 마찬가지다. 나는 아직도, 주로 2차대전 이후에 개발된 미국의 군사 개념과 용어를 사용해 그보다 120여 년이나 먼저 나온 「전쟁론」을 번역할 수 있는 건지, 그렇게 번역해도 되는 건지, 확신이 서지 않는다.

일체의 잔재 위에 미국식 용어가 더해져 군사적으로 번역되면, 「전쟁론」을 이해하는 길은 요원해진다.

「전쟁론」은 결코 쉬운 책이 아니다. 난해한 책이다. 탈고되지 않은 원고이기 때문이고, 저자가 독특한 개념체계를 수립했기 때문이며, 무엇보다 번역서가 어렵기 때문이다. 이토록 어려운 고전에 대한 독자의 접근을 ‘국어’가 안되는 문장으로 미리부터 ‘봉쇄’해서 안될 것이다. 「전쟁론」을 이해가 되도록 쉽게 우리말로 옮기는데는 전문지식과 어학실력은 물론, 노력과 인내 그리고 무엇보다도 시간이 절대적으로 필요하고 중요하다. 급하게 내놓은 번역서는 붕괴되는 다리나 건물처럼, 하나의 부실건물에 불과하다.

글은 쉽고, 문장은 짧아야 한다. 그래야 이해하기 쉽다. 그리고 이제 「전쟁론」도 그러한 번역이 나올 때가 되었다. 이 글이 그러한 번역서 출현의 계기와 자극이 되기를 바란다.

< 참고문헌 >

* 클라우제비츠의 「전쟁론」 번역서는 아래와 같이 먼저 따로 정리한다.

- 1972.10, 권영길, 하서출판사, 상·하
- 1972.12, 이종학, 대양서적
- 1981.7, 허문열, 동서문화사
- 1982.2, 김홍철, 삼성출판사
- 1982.6, 허문열, 범한출판사
- 1982.7, 권영길, 양우당, 상·하
- 1983.6, 허문열, 학원출판공사
- 1987.3, 이종학, 일조각
- 1990.5, 맹은빈, 일신서적출판사
- 1991.5, 강창구, 병학사, 상·하
- 1993.2, 역자 미상, 합동참모본부, 상·하
- 1998.6, 류제승, 책세상

** 그 외 참고문헌

- 김홍철, 1991, 「전쟁론」, 민음사
- 윤형호, 1994, 「전쟁론」, 한원
- 이종학, 2002, “클라우제비츠 「전쟁론」 재번역에 관한 단상”, 「군사논단」 32, 한국군사학회, 143~149
- 이종학, 2002a, “클라우제비츠 「전쟁론」의 연구(1) - 전쟁의 삼위일체에 대하여”, 「군사논단」 33, 한국군사학회, 156~166
- 진석용, 2002, “읽기 힘든 번역서”, www.krf.or.kr/html/newsletter
- 클라우제비츠, 1968, 「전쟁론」, 시노다 히데오(篠田英雄) 역, 이와나미(岩波書店), 전3권
- Carl von Clausewitz, 1993, *On War*, translated by Michael Howard and Peter Paret, Alfred A. Knopf, Everyman's Library
- Carl von Clausewitz, 1999, *Vom Kriege - hinterlassenes Werk; ungekürzter Text*, Ullstein

On the Korean Translations of Clausewitz's *On War*

Kim, Man-Su

Clausewitz's *On War* is a very difficult classic. Because its manuscript was not completed by him, and the Korean translations are hard to understand.

Seven Korean translations of the twelve, all of the Korean translations of *On War*, are the plagiarisms or very alike to the former translations. It remains only five translations, to that is worth reading.

Even the five are composed of Korean, difficult to understand. Because they are full of Japanese and Chinese terms, the sentence structures too long and complex, and many of terms too 'military'.

Now is the time to translate the book new, that is understandable with easy and simple terms and short sentences.

Keywords : Clausewitz's, translations, *On War*